

1.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A. 조사목적

자산, 부채, 소득 등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B. 주요 작성통계

공통 조사표(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 운용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노후생활 등 185개항목)

C. 통계(지표) 산출방법

i. 표본규모 설정

1. 시·도별 자산비중을 고려하여 목표 CV를 설정

- 서울, 경기, 부산, 울산, 충북: 4.5~5.5%
-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경북, 제주, 세종: 5.5~7.0%
- 그 외 지역: 8.0~9.5%

2. 전체 2225개 조사구(매년 445개, 세종시 45개 조사구 추가)

3. 표본오차: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표본오차(KOSIS, 소득5분위별 상대표준오차 수록)

ii. 자료수집: 면접조사

D. 모집단: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이상의 일반가구

E. 표본추출방법

층화확률추출 (층화: 시도×(동/읍면)×주택유형(일반/아파트/대형): 68개층(세종시 추가))

i. 추출단위

(1단) 조사구 추출, (2단) 가구 추출

ii. 추출 틀

1. 2015년 인총(인구주택총조사) + 매년 갱신된 등록정보

2. 5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모집단 분할, 관리

(분류지표: ①공시지가 ②가구원수 ③입주형태 ④전용면적/주택유형)

F. 표본크기: 약 20,000가구

G. 조사 시점과 기간

i. 조사 대상기간 및 조사기준시점

1. 가구구성, 자산 및 부채: 조사 년도 3.31
2. 소득, 지출, 원금상환액 및 이자지급액: 전년도 1.1~12.31 (1년간)

ii. 조사기간

1. 면접조사기간: 3월 말~4월 중
2. 인터넷조사기간: 4월 초

iii. 조사주기: 1년

H. 해당 통계 관련 언론보도

i. <개인 주식 열기로 '2대8 가르마' 가계자산 구도에 균열>

국내 가계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고 이를 포함한 실물자산은 80%에 가깝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 비중은 2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2 대 8 가르마' 꼴의 자산 구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지난해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주식 열기가 이 강고한 가르마 구도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 주식 열풍 때와는 다른 개인의 투자 패턴, 초저금리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가계의 자산 보유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통계청·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해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다. 최근치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지난해 3월 기준 자료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23.6%, 실물자산 비중은 76.4%로 나타난다. 조사 첫해인 2010년 21.3%대 78.7%에 견줘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자산 비중은 2013년 25.9%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4.5%에 이어 지난해까지 줄곧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실물 쪽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¹

ii. <[더오래] 10억 이상 부자 35만명, 금융자산 총액의 57% 차지>

지난 은퇴 지갑 17회에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자산별 순위 커트라인을 언급했다. 이에 상위 순위의 커트라인이 의외로 낮다는 반응이 많았다. 먼저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통해 원래 자산 커트라인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았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자산순위 커트라인을 알아보고 지난번 전국 커트라인과 비교했다.

¹ 김영배, 「개인 주식 열기로 '2대8 가르마' 가계자산 구도에 균열」, 『한겨레』, 2021.1.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857.html)

우선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에 대한 조사자료인 KB 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금융자산 상위 0.1% 커트라인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17억원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커트라인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분석한 6억3000만원의 두배 가까운 12억10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상위 10% 정도까지는 고액 자산가로 인해 순위가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금융자산 상위 10% 이하에서는 커트라인의 변화가 별로 없다. (후략)²

² 김진영, 「[더오래] 10억 이상 부자 35만명, 금융자산 총액의 57% 차지」, 『중앙일보』, 2021.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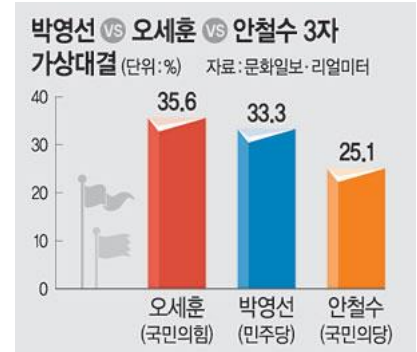
(<https://news.joins.com/article/23993804>)

2. 서울, 부산 자치단체장(시장) 보궐선거

A.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시장 보궐선거 (조사자: 리얼미터, 의뢰자: 문화일보)

최종 후보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i. 서울 시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 35.6%, 박영선 후보 33.3%, 안철수 후보 25.1%
- ii.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54.5%, 박영선 후보 37.4%
- iii.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 양자 대결에서도 안 후보(55.3%)가 박 후보(37.8%)를 크게 따돌림.³



B. 2021년 재·보궐선거 부산광역시시장 보궐선거 (조사자: ㈜한국리서치, 의뢰자: KBS)

여야 최종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 i. 부산 시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박형준 후보 40.9%, 김영춘 후보 27.1%, 모르거나 무응답 16.8%
- ii.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 후보 평균 15.7%가 그렇다고 답함.
- iii.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여론조사 결과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 48.4%, 국가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 33.4%, 모르거나 무응답 18.1%
- iv.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 사안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27.5%, 주거 및 부동산 정책 18.3%
- v. 투표 참여 여부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 66.1%, 하지 않겠다는 의견 4.1%로 절대적으로 높은 투표권 행사 수치⁴

³ 조성진, 손우성, 「'3자 대결' 오세훈 35.6. 박영선 33.3 안철수 25.1%」, 『문화일보』, 2021.3.1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501030130120001>)

⁴ 김계애, 「[여론조사] 김영춘 27.1% vs 박형준 40.9%」, 『KBS』, 2021.3.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7559>)

C. 비교분석

	서울특별시시장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시장 보궐선거
모집단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이상 남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선/무선 ARS	무선전화면접
조사기간	2021.3.13 15시 20분~21시 30분 2021.3.14 09시 10분~11시 20분 (조사일수 2일, 조사시간 8시간 20분)	2021.3.8 10시 35분~21시 05분 2021.3.9 09시 30분~17시 45분 (조사일수 2일, 조사시간 18시간 45분)
표본추출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	- 유/무선 전화번호 RDD - 980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	- 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 통신사제공(SKT(8023개), KT(4810개), LGU+(3208개) 가입자 리스트로부터 무작위 추출
표본크기	1030명 (남 645명, 여 385명)	800명 (남 391명, 여 409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3.1\%$	95% 신뢰수준에 $\pm 3.5\%$
응답률	1.7%	17.5%

D. 해당 조사 방식들의 장단점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란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따라 질문하여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직접 대면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면접원들의 업무 숙지가 끝나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업무 시간대의 유연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접원의 사전교육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 시작 전 준비 단계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ARS(Automatic Response System)는 전화면접조사와 다르게 면접원이 직접 통화하는 것이 아닌, 녹음된 성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보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전화설문조사이다. 자동응답시스템의 사용으로 면접자가 직접 전화할 필요가 없어져 인력의 소모가 줄어들고, 조사 전 사전준비 과정 역시 성우의 녹음과 셋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간편하다. 특히 공정성이 필수인 선거여론조사 등의 경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각 조사 항목을 자동으로 로테이션해주는 기능을 탑재하는 등, 기술의 응용으로 통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⁵ 하지만 메뉴구성이 복잡하거나, 키패드 사용 등 해당 기능에 대해 무지한 사용자의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 문제점 (자신의 의견)

ARS로 조사한 서울특별시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표본추출과정에서 번호를 무작위 생성하여 피조사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저조하다. 결번(조사시점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이 사

⁵ (주)코리아정보리서치 ARS 시스템

용규모 359790중 77207건이며, 접촉 후에 중도이탈 사례는 54817건, 응답 사례는 820건으로 접촉에 성공한 경우에도 설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무선전화면접의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한 가입자 리스트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ARS보다 비교적 응답률이 높다. 규모 12971중 결번이 176건, 접촉 후 중도이탈은 3767건, 응답은 800건으로 접촉 후 설문 성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 ARS는 인력의 소모가 적은 대신 설문 성공률이 좋지 않아 표본 수집에 더 많은 시도를 행해야 한다. 반면 전화면접의 경우 더 높은 응답률로 표본 수집이 ARS에 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설문을 직접 진행하는 상담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육도 필수적이다. 또한, 전화면접조사는 중도적 성향 및 모름/무응답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ARS조사는 양극단적 성향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실험 결과도 존재한다.⁶ 이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효율성을 따지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점과 조사 방법에 따른 답변 성향 등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⁶ 박인호, 임종호, 박민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한국 통계학회』, 2019.10